

의안번호	제234호
------	-------

발 의 년 월 일

2023. 11. 2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장순관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장순관 의원 외 10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장순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4호
------	-------

발의연월일 2023. 11. 20.

발 의 자 장순관,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홍원표 의원(총11인)

1. 주 문

-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에너지, 산업용 원료물질, 소재 생산의 원료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목재펠릿이나 목재칩 등 연료로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과실수를 포함하는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국토의 약 62.6%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펠릿이나 목재칩 등 연료로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매우 좋은 방법중 하나임

-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과실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실수 폐목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에 과실수를 포함 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산물로 수종갱신, 산지개발로 인한 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병해충 피해목, 가로수 산물, 산불 피해목, 자연재해 피해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ha로 국토의 약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은 4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원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연간 나무 성장량(생장량)은 2천 2백만톤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은 2019년 22만톤에서 2021년 83만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자원의 대체 효과로 인하여 에너지와 산업 소재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입산 원료를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재펠릿 1톤으로 1.62M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유연탄 약0.62톤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 1.4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산림에 과도하게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칫 대형 산불의 원인이기 때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거를 통한 활용은 산불확산 방지에도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탄소중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입니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성장하며, 산림을 가꾸는 과정이나 산불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전량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출량의 과다 계산 방지를 위해 연료로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추가로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과정에서 재흡수되고 저장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배출량을 “0”으로 할 수 있기에 탄소중립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과실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실수 폐목의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에 과실수를 포함 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 1.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